

전쟁기념(박물관)관의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Paradigm Shift of War Memorial/Museum

Author 김명식 Kim, Myungshig / 정회원, Interior Architecture and Design, Ph.D.

Abstract The study explores, by carrying out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pursuit) and case analysis (practical works), the changed point of view on the European war memorial/museum, the revolution of museography and its paradigm, the case analysis of war memorial/museum in the paradigm shift, the new point of view and its role. Through the theoretical thinking and the case analysis, it concludes that the exhibition space of war memorial/museum, which is in the center of material culture, is turning into the venue of societal culture. Ultimately, it aims at indicating the necessity of the paradigm shift, and offering the exhibition design strategy and technique which can better display the objects - remains - of the terrible war and the importance of peace for the old generation and the future generation.

Keywords 박물관학, 전쟁박물관(기념)관의 패러다임, 전시디자인, 전시전략, 전시기법
Museography, Paradigm of War Memorial/Museum, Exhibition Design, Exhibition Strategy, Display Techniqu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학(Museography)은 미술, 조각,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쟁기념(박물관)학(Museography of War Memorial/Museum)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가 건축분야에서 진행되고 그 성과도 차례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과 전시공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실내건축/디자인과 건축분야에서는 부재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것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적하고 이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전시공간디자인의 전략과 전시기법에 관한 연구는, 전쟁을 주제로 하는 한국의 전시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 현장에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시대 주변국가간의 청산되지 않은 전쟁범죄에 대한 조치는 유럽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이를 다루는 전시공간 역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반시대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해결해야 할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

대,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받은 피해국으로서 한국 그리고 동시에 베트남에 대한 가해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역시 전쟁과 관련된 역사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하거나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 이외에 전쟁을 주제로 하는 전시공간에 관련된 패러다임과 이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전시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박물관(기념)관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전쟁전시공간에 관한 사유 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설정 그리고 전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시의적절한 전략과 기법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시대의 요구로서 변하고 있는 전쟁기념(박물관)관의 패러다임과 전시공간디자인의 전략 및 기법에 관한 연구는, 현재 주변국의 역사 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실내건축/디자인을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론적 기반과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전쟁기념(박물관)관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기관에, 전시공간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자료와 전시공간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전쟁을 주제로 하는 전시공간은 전쟁이라는 끔찍함에 서부터 인류의 평안과 발전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주제 의식으로 하는 다소 다루기 쉽지 않은 공간이다. 전쟁전시공간은 사회의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이해는 선행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권위적으로 변화고 있는 시점에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경직된 사고는 전쟁을 다루는 전시공간학의 유연한 발전과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전쟁기념(박물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고, 이에 따라 전쟁전시를 위한 박물관학은 그 전략과 기법을 점차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쟁기념(박물관)의 전시 패러다임은 같은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것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인식이 약하고, 이 때문에 전시디자인의 내용적 수준은 전시효과의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박물관학의 패러다임은 이탈리아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및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종합적인 견해는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학이 20세기 전후를 거치면서 한 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다시 한 번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본 연구는 전쟁기념(박물관)학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찾고 현재의 패러다임을 밝히기 위하여 문헌을 조사하고 사례를 분석해 나간다. 이를 통해서 전쟁전시에 대한 담론과 디자인 전략 그리고 기법을 제시한다. 사례조사에서는 각각의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분석의 결과를 통해 그 신뢰성을 높인다.

요컨대, 전체 내용은 전쟁기념(박물관)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탐구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며 당대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전시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련된 이론을 추적하는 문헌 조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 분석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2. 전쟁기념(박물관)의 패러다임 전환

전쟁박물관(기념)관은 전쟁을 주제로 전시공간을 다루는 곳이다. 초기 이곳은 승리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승자의 관점에서 전시물을 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전시공간은 승전(勝戰)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시물로 채워졌다.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와 보급품, 획득한 전리품 등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물이 전시의 대상이었음은 따로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요컨대, 초기 전쟁기념(박물관)관은 승전국의 관점으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것은 하나의 기념비였다.¹⁾ 이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인식이 초기 전쟁전시공간을 계획하는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그리고 그 이전의 전쟁과 관련된 전쟁기념(박물관)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영국의 박물관학자 피터 데이비스(Peter Davis)에 따르면 20세기 전후로 전쟁기념(박물관)관은 교훈적인 성격이 추가되었고²⁾ 미국의 박물관학자인 조셉 비치 노블(Joseph Veach Noble)에 의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20세기 후반은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이 전쟁기념(박물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³⁾ 이때부터 전쟁의 끔찍함과 함께 평화의 소중함을 주제로 전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시공간의 성격과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고 유럽 연합과 냉전 시대 세계 평화에 응하는 상호 입장을 존중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맞게 되었다.⁴⁾

요컨대, 전쟁기념(박물관)의 패러다임은 승전국으로서 승리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공간 그리고 참전국을 서로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현재 전쟁전시공간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나라들 사이 적대적인 관계를 벗어나 상호 존중의 관점으로 그리고 서서히 전지구적 공동체의 관점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기치 아래 전지구적인 공동체의 관점

- 1) 러스킨(John Ruskin)이 '소리 있음의 깊은 감각'(deep sense of voicefulness)을 언급하였듯이, 남겨진 유물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물질문화로서 그것의 가치가 있으며, 남겨진 유물의 전시는 박제되어 그 자체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기념(박물관)의 전시물은 과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참고, Ruskin, Joh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originally published in 1880),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9, p.194
- 2) Graham, Brian and Peter Howard,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Heritage and Identity*, Ashgate, Hampshire, 2008, p.397
- 3) Weil, Stephen E, *Rethinking the Museum and Other Meditations*,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0 p.74
- 4) 참고 Kjeldbaek, Esben (ed.), *The Power of the Object: Museums and World War II*, Edinburgh, MuseumEtc, 2009, pp.362-392

은 다른 나라, 체제, 문화, 종교, 인종 등을 넘어 하나의 지구공동체로서의 인식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시디자인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기념(박물관)은 물질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대상물을 매개로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넘어서는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전시공간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전쟁기념(박물관)은 그들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작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전시공간과 연계한 외부 답사(관광), 그리고 실내공간의 전시뿐만 아니라 실외 유적지와 연계 프로그램, 특별한 행사를 위한 기념 파티 혹은 축하연을 위한 전시공간의 대여 등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⁵⁾

3. 박물관학의 변혁과 전쟁기념(박물관)의 변화

앞서 언급한 데이비스는 기존 박물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보호와 해석이었다면, 이후 교육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추가되어 변하였다는 점을 New Museologies and the Ecomuseum(2008)에서 기술하고 있다.⁶⁾ 다시 말해서 그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박물관의 책무가 보호, 해석,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박물관의 변혁은 노블이 작성한 박물관의 근본적인 책무를 먼저 살펴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다섯 가지 항목, “수집하고, 보호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며, 전시하는 것”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⁷⁾ 그는 또한 이러한 책무사이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의 문제, 즉 박물관의 근본적인 책무 중 하나로서 교육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노블이 정리한 박물관의 다섯 가지 책무는 네덜란드 박물관학자 피터 반 멘쉬(Peter van Mensch)에 의해 간결하게 요약되었다. 그는 세 가지의 본질적인 책무를 주장하였는데 ‘보존하고, 연구하고, 소통하기’가 그것이다. 첫 번째 ‘보존하기’는 노블이 처음으로 말한 단순하게 보이는 수집 이후의 단계를 말하고, 두 번째 ‘연구하기’는 노블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세 번째 ‘소통하기’는 노블이 말한 마지막 두 개의 해석과 전시의 결합을 말한다.⁸⁾

멘쉬는 모든 박물관의 책무를 관통하는 가용할 만한

상상력과 풍부한 아이디어 그리고 박물관의 이론적 특성과 실제 특성 둘 다의 급진적 재평가에 기여하였으며, 정책적인 의제와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발전하려고 했던 ‘두 번째 박물관의 혁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⁹⁾

박물관학의 첫 번째 변혁에서 다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노블과 멘쉬의 각각 다섯 가지와 세 가지의 본질적인 책임과 임무는 20세기 후반 박물관의 실제 모습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혁과 변화의 맥락 속에서 전쟁기념(박물관)학의 변화역시 이어졌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세대 변화로 요약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1> 박물관학의 변혁과 전쟁기념(박물관)의 변화

	박물관학	전쟁기념(박물관)
19c 중반-20c 초반	보호, 해석, 교육	1세대: 과시, 전승 기념 및 상징
		2세대: 교육, 교훈
20세기 후반	보존(수집/보호), 연구, 소통(해석/전시)	3세대: 평화, 상호 존중

박물관학의 첫 번째 변혁 이전에 전쟁기념(박물관)은 수집, 보존, 연구 및 전시의 책무로 특히 전승(戰勝)의 과시가 주 전시공간의 방점으로 찍혔다. 그것은 이미 기술하였듯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것의 자랑스러운 입장을 표방하는 것으로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전쟁기념(박물관)의 첫 세대 특징이다.

다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자료, 무기와 같은 잔존물의 보호와 해석 그리고 이를 통한 교육의 책무를 수행하였던 전쟁기념(박물관)은 이전과 다르게 교육과 교훈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 전시공간은 이러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계획되는데, 전쟁기념(박물관)의 두 번째 세대의 특징으로 이해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 세대의 특징은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 이후,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연합(EU)의 필요성, 인종 차별 금지, 세계 평화, 인권보호 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된 현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EU 형성에 따른 일련의 과정은 이주와 이민 그리고 다문화 발생을 촉진시키고, 보편적인 평등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점이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전쟁기념(박물관)은 종전(終戰) 이후에 남은 여러 가지 자료와 무기를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전시하여 방문객에게 교훈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소통에 방점을 찍게 된다.

이것은 제 3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대중과의 소통과 사회적인 반응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의 요구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예컨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벨기에 국경 근처에 있

5) 이와 같은 사실은 2011년에서 2015년에 걸쳐 EU의 지원으로 밀라노 공대를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MeLa* 프로젝트(The Resear Project - European Museums in an age of Migrations)에서 알 수 있다. 참고 www.mela-project.polimi.it.

6) Graham, op. cit.

7) Weil, op. cit. 보호, 해석, 교육으로 이해되는 첫 변혁과 비교했을 때, 수집과 연구 그리고 전시가 추가되고 교육이 빠져있다.

8) Ibid.

9) Martin R. Scharer (ed.), Symposium Museum and Community II, ICOFOM, July 1995, p.134

는 Eco-museum인 Fort de Battice 그리고 베를린 도심 중앙에 있는 Open-air museum인 Topography of Terror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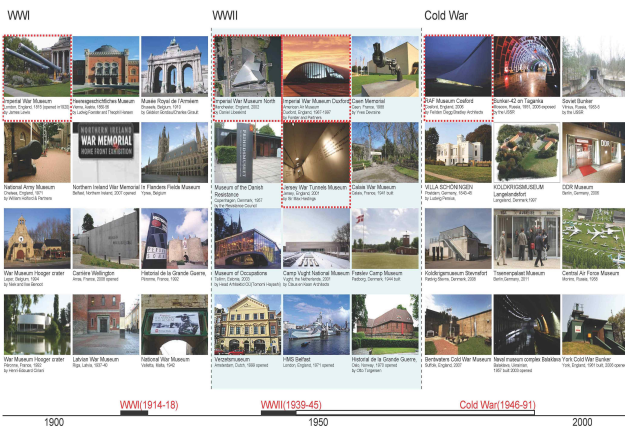
<그림 1> Fort de Battice 유적 기념비



<그림 2> Topography of Terror 박물관

중요한 것은 현재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과 함께 서서히 새로운 세대의 전쟁기념(박물관)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시공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시대상을 다루는 전시공간(박물관)이 보호, 해석, 교육, 수집, 연구, 전시, 보존, 소통과 같은 기존의 책무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4. 전쟁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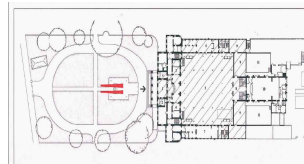
<그림 3> 유럽에 위치한 36개의 전쟁박물관(좌측 3열, 제 1차 세계대전(WWI)과 관련된 박물관 12개, 중앙 3열, 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박물관 12개, 그리고 우측 3열, 냉전과 관련된 박물관 12개)

전쟁기념(박물관)에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시 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별된 사례조사와 분석이 수행되었다. 사례조사의 범위는 지리적으로는 유럽 시기적으로는 제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Cold War)을 다루는 유럽의 전쟁기념(박물관)으로 총 서른여섯 개의 전쟁박물관(기념)관이 조사되었고(참고 <그림 3>), 그 중 <표 1>에 나오는 각 세대별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다섯 개의 대표 전쟁기념(박물관)이 선별되어 분석되었다.



<그림 4> 좌측에서 차례대로, Imperial War Museum London(WWI), Imperial War Museum Duxford(WWII), Imperial War Museum North(WWII), Jersey War Tunnel Museum(WWII), RAF Museum Cosford, National Cold War Exhibition(Cold War)

다섯 개의 사례 중 첫 번째는 1815년에 제임스 레비스(James Lewis)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로 1920년에 개장한 Imperial War Museum London(WWI), 두 번째는 1987년에서 1997년에 노만 포스터(Forster and Partners)에 의해 지어진 Imperial War Museum Duxford(WWII), 세 번째는 2002년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에 의해 맨체스터(Manchester)에 지어진 Imperial War Museum North(WWII), 네 번째는 1941년 히틀러에 만들어진 터널을 1946년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2001년에 전시공간으로 개장한 Jersey War Tunnel Museum(WWII),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06년 펠턴 클레그 브레들리 스튜디오(Feilden Clegg Bradley Architects)에 의해 지어진 RAF Museum Cosford, National Cold War Exhibition(Cold War)이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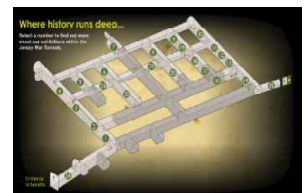
<그림 5> Imperial War Museum London(WWI)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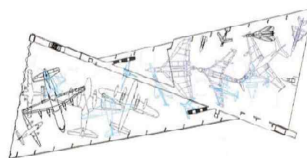
<그림 6> Imperial War Museum Duxford(WWII)의 전시공간



<그림 7> Imperial War Museum North(WWII)의 프로그램



<그림 8> Jersey War Tunnel Museum(WWII)의 프로그램



<그림 9> RAF Museum Cosford, National Cold War Exhibition(Cold War)의 평면

각 사례는 전쟁기념(박물관)의 세대별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세대 분류를 시작으로, 각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관의 공간 형태와 전시대상(전시물), 특정한 기획과 주제에 의해 계획되는 전시물의 배치와 2차원적 평면 혹은 3차원적 공간 관람 동선,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전시물과 과학 기술의 접목, 전쟁의 공간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시노그래픽(scenographic) 기법이나 이야기 전개(스토리텔링)를 이용하여 전쟁사를 일련의 순서로 보여주는 내러티브(서사), 보다 더 깊은 내용이나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전시 관람의 한 부분으로서 큐레이터와의 대화 혹은 상세한 설명을 듣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나, 특별한 기념행사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총 8개의 분석 틀로 각각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분석된 내용을 간결하게 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다섯 개의 대표사례분석 요약

	세대	전시공간	전시대상	배치,동선	기술	서사	상호작용	이벤트
IWM London 1920	1	전통적	비행기, 무기류,	대칭,2차원	x	x	대화	가족실
IWM Duxford 1997	1, 2	과학적	비행기, 미사일	자유,3차원	x	x	x	에어쇼
IWM North 2002	3	해체적	비행기, 탱크, 포	체계적,2차원	전시물과 통합	배경화법	참여, 대화, 답사	파티
JWT 2001	2, 3	터널	땅굴생활품	체계적,2차원	전시물과 통합	배경화법	대화	영상감상
RAF 2006	2, 3	은유적	비행기, 미사일	체계적,3차원	x	배경화법	탑승및 조종	에어쇼, 갈라쇼

본 사례 분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3세대로 전환되는 패러다임과 전시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이다. 예컨대, IWM North와 JWT와 RAF에서 다소 무겁거나 지루할 수 있는 전통적인 대칭 혹은 정적인 전시공간을 해체적이고 은유적으로 디자인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시물과 과학기술을 통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는 전시기법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술적이고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의 전시기법과 마치 전장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공간 연출, 보다 더 흥미를 유발시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제공되는 다소 극적이고 역설적인 의미의 기념행사가 늘어가고 있음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전략과 기법은 사실 다양한 기념(박물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보수적이고 시대의 흐름과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전쟁기념(박물관)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IWM North와 JWT와 RAF의 이벤트 항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질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물은 빠르고 특별한 행위가 일어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점은 한국의 Museography of War Museum/Memorial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 수준 향상을 위한 발 빠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JWT, 영화의 장면처럼 구현한 영상 관람



<그림 11> RAF의 비행기 탑승 및 조종 체험



<그림 12> IWM North 전시공간 안에서의 특별한 저녁 파티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전시대상을 다루는 전시공간(박물관)의 책무가 보호, 해석, 교육, 수집, 연구, 전시, 보존, 소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JWT의 큐레이터와 대화 그리고 영화의 장면처럼 구현한 영상과 RAF의 비행기 탑승 및 조종 그리고 에어쇼와 갈라쇼의 관람은 관람객과의 소통을 넘어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세대로의 발전이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분석 결과는 IWM North가 보여주고 있는 전시공간의 변화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느 때에만 기념하고 지나가는, 일상과 거리 먼 전시공간에서 벗어나 역설적이지만 일상으로 파고드는 전시공간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은 전시공간이 전시대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관람의 영역이 아니라 공간자체가 사람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제공되는 활동의 영역으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물질문화의 장소에서 사회문화의 장소로 그 성격이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¹⁰⁾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전쟁기념(박물관)(예컨대, 용산 전쟁기념관)은 이러한 패러다임

10) 물질문화는 감각의 원천이 되는 것(여기서는 전시 대상, 즉 전시물)으로 발산되는 것을 말하고, 사회문화는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실제(여기서는 전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를 말한다.

의 전환 속에서 IWM North의 파티와 같은 공간사용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전시전략과 기법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전쟁전시공간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전쟁기념(박물관)의 새로운 관점과 역할

앞서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박물관학의 관점변화와 함께 전쟁기념(박물관)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진화, 패러다임의 전환과 전쟁기념(박물관)의 변화는 그것의 기능, 영역, 역할, 의무, 책임 등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넘어 전지구적 반응과 소통을 목적으로 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전쟁의 이야기와 전쟁의 잔존물을 통하여 승리의 상징을 나타냈던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 사소하게 치부되던 개인과 일상을 조명하는 예컨대, 전쟁에서의 피폐한 삶과 이산가족, 성범죄 피해 여성 등과 같이 망원경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현재 바뀌고 있다.¹¹⁾ 전시측면에서는 전쟁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와 잔존물이 과학기술과 통합되어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전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3> 독일 국민이 사랑한 히틀러를 전시하고 있는 IWM North



<그림 14> JWT 터널 내에 당시 생존자와 대화 가능한 장치 설치

<그림 15> JWT 터널 끝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비주얼 아트와 같이 영상장치로 구현

11) 심지어 전쟁의 원흉으로 여기는 히틀러조차 조명되고 있다. 전쟁의 주요한 역사에서 밀려나 있는 마이너 영역은 점차 조명을 받고 있다. IWM North에서 전쟁기간동안 여성의 패션, JWT에서 보여주고 있는 터널 안의 삶, RAF에서 조명하고 있는 여성의 조종사 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더욱 차별화되는 것은 전시공간이 더 이상 물질문화의 정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의 장 혹은 기념 파티가 일어나는 역설적인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방문객과 전시공간, 전시대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반응의 장소가 되고 있는 점은 전쟁기념(박물관)의 기존 역할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것, 즉 다음 세대로 이행하는 또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그것의 패러다임과 역할이 새로이 사회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역설적인 아이디어 예컨대, 전투, 전쟁에 대한 끔찍했던 기억과 다르게 웃음과 즐거움의 공간, 즉 전시공간이 이벤트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역설적인 아이디어는,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세대와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전시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끔찍한 기억과는 반대로 축제와 같은 이벤트의 역설적인 공간을 통하여 평화를 전제로 하는 공간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삶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는 전쟁박물관(기념)관을 유리시키지 않고 보다 더 우리의 일상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과 사람들만이 기념되고 추모되는 전시로써 매년 반복되지만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게 되는 일시적인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기념(박물관)이 우리 일상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평화, 인권, 평등, 존중 등의 소중함을 일깨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결론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그로 인해 함께 발전하게 되었던 전쟁기념(박물관)학, 전시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전시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은 더 이상 물질문화의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쟁박물관(기념)관의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변모하고 있는 어제로부터의 탈피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 연구되었던 그러한 변화 과정의 이론적 추적과 사유, 실천적 사례조사와 분석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 연구되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쟁기념(박물관)이 다루는 전쟁이 승전국의 관점에서 하나의 기념비로서,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전지구적 공동체의 관점으로의 이행, 나아가 지구공동체로서의 인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은 실제로

전통적인 전시디자인에서 벗어나 예컨대, 실외 유적지와 연계 혹은 축하연을 위한 전시공간을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박물관학의 변혁을 상세히 살펴보았듯이, 박물관학의 발전과 함께 전쟁박물관(기념)관은 사회적 반응을 고려한 소통의 창고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나아가 바라보는 전시의 공간이 아니라 직접참여하고 소비하는 행위의 공간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다섯 개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쟁기념(박물관) 전시디자인의 전략과 기법을 찾아내고 정리하였듯이, 전쟁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해체적, 은유적, 입체적 전시공간과 장면 연출(scenography), 이야기전개 방식의 서사적 기법, 주목받지 못한 영역의 조명, 전시물과 과학기술의 접목, 시각 예술적 영상미,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장치 등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고 특히, 특별한 이벤트 예컨대, 이브닝 파티(저녁 만찬)를 위해 제공하는 전시공간은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전쟁박물관(기념)관의 새로운 관점과 그 역할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전쟁의 직접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였다. 과학기술이 접목된 예컨대, 음향과 진동, 상호반응과 대화, 시각 예술적 영상과 체험 등의 전시디자인은 우리 시대 한국의 전쟁기념(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전시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기념(박물관)의 본질이 전쟁의 잔존물인 전시대상 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선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의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전시디자인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수적인 작업관례에서 벗어난 변화된 공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일보된 발전과 함께 궁극적으로 전쟁기념(박물관)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상호작용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화려한 이벤트로 사람들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재 전환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관한 이론적 사유와 함께 전쟁기념(박물관)은 효과적인 전시디자인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세대에 전쟁의 끔찍함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고 또한 일상적인 것으로 항상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역설적인 공간 사용은 전시계획의 전략 및 기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점과 동시에 한국의 전쟁기념(박물관)의 전시공간에 던지는 화두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전시디자인의 새로운 창작의 토대, 보다 혁신

적이고 흥미로운 전시공간디자인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시공간을 다루는 전시공간디자이너, 실내건축가/디자이너, 건축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변하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의 전쟁박물관(기념)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작업을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Blundel-Jones, Peter, "War Stories: Museum Salford UK.", Architectural review, 2003 Jan., v.213 n.127
2. Dean, David, Museum Exhibitio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London, 1994
3. Graham, Brian and Peter Howard,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Heritage and Identity, Hampshire, Ashgate, 2008
4. Greenberg, Reesa, Bruce W. Ferguson and Sandy Nairne (eds.), Thinking about Exhibition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6
5. Kjeldbaek, Esben (ed.), The Power of the Object: Museums and World War II, Edinburgh, MuseumEtc, 2009
6. Libeskind, Daniel and David Dunster, "Devastation into destination-Libeskind in Salford: Daniel Libeskind's first UK building..", Architecture today, 2002 July, n.130
7. Mapelli, Elisabetta G, "Museo della Guerra a Manchester = Imperial War Museum of the North, Manchester, UK", Industria delle costruzioni, 2003 May-June, v.37 n.371
8. Martin R. Scharer (ed.), "Symposium Museum and Community II", ICOFOM, July 1995
9. Pawley, Martin, "Design war [Imperial War Museum, London]", Architects' journal, 1989 Aug.16, v.190 no.7
10. Russel, James S, "With the Imperial War Museum North, Daniel Libeskind Builds His Case for A Major Museum Destination on A Budget", Architectural record, 2002 Oct., v.190 n.10
11. Sudjic, Deyan, "Daniel Libeskind - las partes en conflicto: Museo de la Guerra, Manchester", AV monographs, 2002 July-Aug., n.96
12. _____, "L'architettura del conflitto [Imperial War Museum, Manchester]", Domus, 2002 Sept., n.851
13. Weil, Stephen E, Rethinking the Museum and Other Meditation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1990
14. <http://www.iwm.org.uk/>
15. <http://www.iwm.org.uk/visits/iwm-london>
16. <http://www.iwm.org.uk/visits/iwm-north>
17. <http://www.jerseywartunnels.com/>
18. <http://www.rafmuseum.org.uk/cosford/>
19. <http://www.topographie.de/>

[논문접수 : 2016. 06. 30]

[1차 심사 : 2016. 07. 15]

[2차 심사 : 2016. 07. 27]

[게재확정 : 2016. 08. 05]